



남원시보건소, 어르신 대상 영양교육 진행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방목건강관리사업 등록자 중 영양 불균형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집중 영양상담과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양상담은 어르신 개개인의 일반적인 건강상태, 신체활동 수준, 만성질환 유무 등을 고려해 건강상태 개선 및 만성질환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노화로 인한 소화기능 장애나 불규칙한 식습관 개선으로 근육손실 및 만성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집중 영양상담은 월 2회 총 10회차로 운영되며, 빈혈, 체성분, 혈압, 당뇨, 총콜레스테롤, 염도측정 등 초기 검사로 건강문제를 함께 알아보고 고혈압 식이요법, 당뇨 식이요법, 이상지질혈증 식이요법 등 각 질환에 맞는 영양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김광명 방목노년 담당관은 "지속적으로 어르신 건강과 생활습관 개선에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석대-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이 업무협약을 체결, 창업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21일 문화관 5층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종석 창업지원단장과 한주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창업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교육 및 자문 지원 △디지털커머스 산업 활성화 협력 △소상공인 발굴 및 사업 홍보 등이다.

이종석 창업지원단장은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로 대전환이 시급한 지금, 창업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우리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주환 콘텐츠사업단장 직무대리는 "우석대학교와의 상호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분야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고순대 9지구대-도로공사 진안, 교통사고 예방 협약

전북경찰청(청장 강홍수)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와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지사장 강종호)는 지난 21일 진안지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지구대는 전라북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순천완주선, 익산진주선, 광주대구선, 대전영양선 4개 노선 241.1km 구간을 관할하면서 고속도로 순찰 및 교통사고, 범죄예방, 교통안전시설 보호 및 설치관단 등 고속도로 안전활동을 수행한다.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는 순천완주선, 새만금포항고속도로 및 지선(익산진주선) 등 3개 노선 81.35km 구간을 관리하면서 고속도로 이용객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행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무협약(MOU)의 주요 내용에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하이라인 구축을 통해 신속출동 및 이동조치를 위한 교통안전협력, 합동단속, 계도 강화를 통한 위법행위 근절, 합동 알람순찰 예방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한 안전행위 환경 조성, 사고 현장 분석, 시설개선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영태 기자

덕진경찰,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위촉·사전 교육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학생들의 일정에 맞춰 선별 자문단원 4명에게 4개교를 직접 방문해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위촉 및 사전교육을 지난 21일 실시했다.

이번 선발된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은 4월중 모집 공고를 통해 전주유일여고 등 4개교 18명으로 구성됐다.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은 기존 공민자 중심의 정책 운영에서 탈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운영을 위해 계획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정책과 관련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단원 위촉 및 사전교육 실시 후 경찰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및 신규제도 제안 등을 듣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영미 기자

“세계잼버리 홍보·자문 역할에 최선을”

전북도, 송창근 KMK글로벌 스포츠그룹 회장 잼버리 홍보대사 위촉

전북도는 21일 도청 회의실(4층)에서 KMK 글로벌 스포츠그룹 송창근 회장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하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라북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송창근 회장은 1989년 KMK를 설립해 28년간 글로벌 스포츠 신발 제조업을 이끌면서 끝없는 혁신을 통해 고객과 직원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쌓는 인간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제인니 한인상공회회장 3·4·5대 회장과 제인니 한국 신발 협의회(KOFA) 1·2대 회장을 역임했다.

송창근 회장은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청소년 축제인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알리는데 적극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가국 중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국가들에 대한 홍보와 자문 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다.

김광영 도지사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전문가로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이 전라북도 홍보대사 역할을 맡아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세계청소년들이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통해 꿈과 기상을 펼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송창근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와 자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 3월 6일 김이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와 이광연 (주)파사픽코리아 회장을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홍보대사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종료 시까지로, 전북도는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잼버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을 비롯해 대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 활동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이달의 협업 주인공 장지원 주무관 선정

전라북도 기후환경정책과 장지원 주무관이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협업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 '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4월에는 민간·공공기관·부서 간 적극적으로 협업에 성과를 달성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의 협업 주인공을 선정했다.

4월의 주인공은 지난 4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라북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달 혁신주인공으로 선정된 장지원 주무관은 대표적인 생활계유해폐기물인 폐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 관련 부서, 지역 약사회, 시군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 배출·수거체계 미비점을 보완한 새로운 배출·수거체계를 마련했다.

장 주무관은 기존 약국 중심의 폐의약품 배출처를 시군과



의 협조체계를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확대했다. 또 지역약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배출 전용스티커를 제작·배부해 일선 약국의 폐의약품 배출편의성을 높였다.

/김재훈 기자

제43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문화행사 성료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안옥)가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가 주관한 '제43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지난 20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장애인의 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각 단체 발전과 위상 정립은 물론 참여단체와 장애인들의 권익과 자부심 용기를 위한 것이 행사 개최의 취지다.

행사에서는 서거식 교육감,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국민회의 정운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영숙 국회의원, 이병철·강동화·황영석·박용근 전북도의원, 이남숙·최주만·최지은·장재희·김정명 전주시의원, 장애인계 양복규 동남아시아장 및 각 26개 도 단위 단체 회장 각 기관·단체장 10여명과 장애인 1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복지공로 표창장 수여식, 장학금 전달식, 문화예술공연 및 각 단체 장기자랑 순으로 열렸다.

장애인 복지 공로 표창장 수여식에서 이정록씨 외 22명이 도지사 표창, 이영재씨 외 24명이 도의회 의장 표창, 강정원씨 외 22명이 교육감 표창장을 받았다.

/김재훈 기자



서곡중, 양심자판기 수익금 30만원 기부

전주 서곡중학교(교장 이원형)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후원하고자 양심자판기 판매수익금 30만원을 효자동 주민센터에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심자판기는 매점이 없는 서곡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 등을 조사 후 구입해 9일동안 재판매해 나온 수익금으로 사회적 책임감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해 운영한 것이다.

서곡중학교 회장단은 "모금된 금액이 장애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해나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형 교장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진 사소한 관심과 관용이 모여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힘껏 돕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완산소방서, 남부시장 야시장 안전지킴이 역할 토크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특수시책 실시와 민·관 협력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 종합안전대책을 5월 말까지 추진한다.

이번 종합안전 대책은 전주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운영중인 남부시장 야시장 재개장에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완산소방서는 매주 금·토요일 2일간 밀집시간인 19~20시를 중심으로 남부시장 야시장에서 안전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소방차량을 근접 배치한다. 또 구급가방을 휴대해 유사시 응급처치를 제공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서학파출소, 전주시청, 남부시장 상인회와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통로 보행자 줄세우기 및 질서유지, 환경 정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김병남 전북대 교수, 전북사학회 신임회장 선출



전북대학교 김병남 교수(인문대 사학과)가 전북사학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전북사학회는 최근 정기총회에서 2023~2024년 학회장에 김 교수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 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국립학예회 전문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자, 백제학회 편집이사, 한국고대사학회 편집위원 및 지역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북사학회는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도내 최고의 역사학회로 1976년 창립해 현재 도내 역사학 교수들과 대학원생, 연구자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신용보증재단, 김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 체결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중환)은 김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태민)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경제적 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에는 △김제시 이용자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심리상담서비스, 금융복지상담에 대한 협력과 상호의뢰·연계 △지역사회 내 위기대상자 발굴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캠페인, 홍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김제시민들에 대한 경제적 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상황을 예방해 '행복하고 건강한 김제시' 만들기 기여할 전망이다.

한중환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김제시민 누구나 금융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제공받아 가정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발전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김제교육문화회관, 치유농업 활성화 협약

김제교육문화회관(관장 박해정)은 20일 회관 1층 시청각실에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원장 천왕우),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동구)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 대상 치유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대상 치유농업 교육과정 개발 △학생·학부모 대상 현장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라북도 치유농장·마을 현장 제공 및 공유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제교육문화회관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지역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로운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힐링 농장체험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각 5회씩 중학생 자녀를 둔 20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김제·익산·완주·고창 등 전북지역 치유농장 체임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농생명과학체험 가족캠프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농어촌공 정읍,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 활동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하인호)는 지난 21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다습동지북지재단과 공사가 함께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다.

이날 정읍지사 직원들은 전문업체와 △난방을 위한 보일러 설치 △산방지를 위한 계단 및 난간설치 △단열을 위한 샷시교체 등 수혜가구에 쾌적하고 따뜻한 보금자리 제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읍지사 하인호 지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 지속하여 우리 결의 많은 농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